



“한·중 출판교류, 투자유치 위해 보폭 넓힐 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대륙에 불고 있는 이른바 한류열풍. 한국의 유행가, 드라마, 영화 등 한국문화는 이제 중국인들의 일상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이런 바람은 출판문화로까지 번져 13억 중국 출판시장이 한국출판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가운데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한국지사장 장수철 씨가 한국에 온 지 1년을 맞았다. 작년 3월에 개소한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한국지사의 초대 지사장을 맡아 한국에 머문 1년 동안 그는 한국과 중국의 상호 저작권협상, 공동출판, 시장개척, 투자유치 등 다방면의 합작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정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 파견나온 만큼 중국정부와 본사로 한국의 출판 소식을 수시로 전하고 있고, 중국 언론에 한국 출판문화계 소식을 기고하고 있다.

중국 연변인민출판사는 지난 1951년에 창립된 중국 동북 길림성에 위치한 종합출판사이다. 중국에서 인민출판사

라는 호칭은 종합출판사에 한해서 붙일 수 있다. 560여 개에 달하는 출판사들 중에서 20여 개만이 종합출판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전업성 출판사’로 한국상황으로 따지자면 전문출판사들인 셈이다.

“사회주의 나라의 체계가 그렇듯이 중국의 출판사들은 모두 정부기관 소속입니다. 당연히 출판사의 규모도 크고 출판사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또 한국과는 달리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출판사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보통 1,000여 평의 사무실에서 1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중국 출판사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몇몇을 제외하곤 군소 출판사들이 다양하게 분포한, 자칫 열악해(?) 보이는 한국의 출판사 현황이 낯설기도 했다. 하지만 체류기간 동안 김영사, 현암사, 범우사 등의 출판사들을 돌아보고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학회 등의 출판계 인사

들을 만나며 점차 한국의 출판문화를 익혀가고 있는 중이다.

“외국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내에 맞게 가공을 하는 점에서 한국 출판계의 지적 역량은 정말 탁월한 거 같습니다. 또 아이디어가 넘치는 기획력도 흥미롭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유창한 한국말과 한국식 이름을 듣고, 출생지를 물으니 아닌게 아니라 ‘교포 4세’ 라고 한다. “제가 있는 중국 연변인민출판사엔 100여 명으로 한국 교포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 출판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2개 국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한, 한·중 번역에 모두 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 연변인민출판사가 중국의 내로라 하는 다른 종합출판사들을 제치고 한국에 먼저 파견될 수 있었던 것도 거기서 기인했다.

13억이라는 중국시장은 말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이다. 한국에서는 10만~50만 부도 ‘대박’에 속하지만 중국에서는 조금만 팔려도 우리의 베스트셀러 범주에 드는 50만 부를 훌쩍 넘긴다.

중국은 앞서 말한 대로 출판사가 국가관리를 받기 때문에 책 내용에 있어서 만큼은 공익적 역할에 충실한 책들이 많다. 하지만 경쟁력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판을 하다 보니 출판사들마다 특별한 차별성을 키우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시장개방화 조약에 따라 점차 문호를 열어아만 하는 상황이다. 본격적으로 시장경쟁체제에 들어서기 앞서 출판사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할 때에 이른 것이다.

“다양한 방면에서 불고 있는 개방화의 바람을 타고 중국의 출판계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출판사는 없지만 5년 전부터 서점이 차츰 민영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점차 출판사에 주는 국가보조금을 줄여 가는 형편이고 자유경쟁체제에 출판사가 적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책들은 주로 만화나 어학서, 과학기술서, 실용서들이다. 아직까지 문학이나 산문들은 큰 반향을 얻고 있지 못하다. 문화가 다른 탓도 크지만 번역상의 문제에도 원인이 있다.

“중국어는 뜻글이다 보니 한국어로 바꿨을 때 약 1.7배 정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꿨을 때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문학작품일 경우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들이 사라집니다.”

때문에 장 지사장이 중국에 소개한 것은 주로 어학과 관

련된 책들이다. 학문사의 《5분간 생활영어》, 삼성출판사의 《만화로 배우는 영어》 등을 소개하였다. 또 역으로 한국에 소개한 중국책도 있다. 연변인민출판사에서 만든, 중국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다는 《신화사전》과 초·중·고생들의 필독서인 《사자성구사전》을 학문사와 계약했다. 금년 안에 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장 지사장은 앞으로 자신의 활동이 한·중 출판문화 교류의 가교가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한국의 출판사들과 교류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이 한국 출판계를 돌아보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양국의 출판교류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한 두 번째 전환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한·중**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